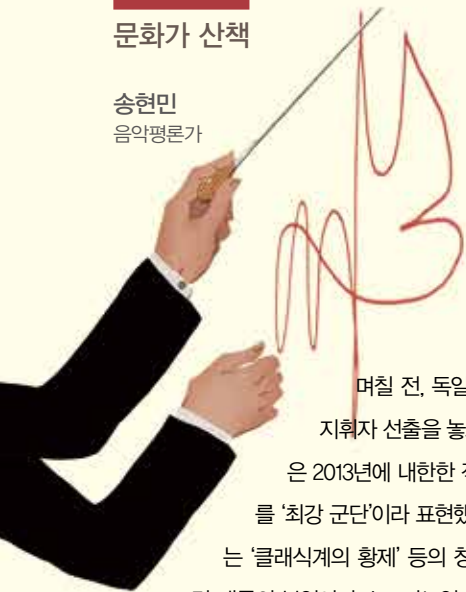




## 신화가 된 지휘자

# 카라얀

며칠 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차기 지휘자 선출을 놓고 유럽 전역이 떠들썩했다. 베를린 필은 2013년에 내한한 적이 있다. 당시 언론은 이 오케스트라를 ‘최강 군단’이라 표현했고, 지휘자 사이먼 래틀(1955~)에게는 ‘클래식계의 황제’ 등의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같은 달에 사이먼 래틀의 부인이자 소프라노인 막달레나 코제나(1973~)까지 내한했는데, 그녀에게는 ‘클래식계의 퍼스트레이디’라는 수식어까지 붙었으니 베를린 필의 위력과 권력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다.

클래식에 흥미가 있는 이들에게 베를린 필이라고 하면 34년(1955~1989) 동안 이 악단을 이끈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08~1989)을 금세 떠올릴 것이다. 이번 글은 20세기 지휘 역사의 신화가 된 카라얀과 그가 열광했던 음반·영상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 공익을 위한 것인가,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20세기가 시작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태어나 끝나기 11년 전에 죽은 그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20세기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단순히 ‘지휘자’라고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든 지휘는 기본. 오페라에서는 손수 연출을 맡는가 하면, 텔레몬디알사를 설립하여 개인 음반을 제작했고, 스튜디오에서는 녹음과 편집에 직접 손을 대기도 했다. 196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과 쿤쿠르를 설립하여 일본의 오자와 세이지(1935~), 러시아의 발레리 게르기예프(1953~) 등의 후배 지휘자를 양성했다. 그가 죽고 없는 지금, 음반과 영상물로 박제된 그 광대한 활동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언제라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신화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레코딩에 몰두한 목적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음악의 향수권을 넓혀 ‘음악의 민주화’를 성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카라얀에 관한 수많은 평전을 읽다보면 그의 이런 의지와 행동은 ‘공익’을 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스타플레이어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는 심지어 베를린 필에 대해 “난 나 자신에게 더 할 수 없이 지극한 사랑과 수고를 들여 이 악기를 장만한 거야”라고 말했다가 “카라얀은 공공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세금으로 혼자 가지고 즐길 개인 소장용 악기를 장만했다고 공연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 음반 녹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든다

카라얀이 가장 매달렸던 것은 음반과 영상물 제작이었다. 클래식 음악은 아날로그의 예술이지만 이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음반에 ‘보존’하고 ‘구현’하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카라얀은 이를 제대로 간파했던 지휘자였다.

그는 특히 새로운 녹음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직접 음향 조정간을 잡는 등 프로듀서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예사일. 1981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일본 소니사의 모리타 아키오 회장을 초청해 CD(Compact Disc)의 공개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녹음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는 녹음 양에 있어서도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음반을 제작했다. 대중으로부터 은둔하여 자신의 음악에만 몰두하길 좋아하던 전 시대의 지휘자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 결과 누구도 넘보기 힘든 아성을 쌓았다. LP(Long Playing), CD(Compact Disc), LD(Laser Disc)로 매체가 바뀌는 데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예견하고 앞서 나갔다.

### ▶ 영화배우 못지않은 화면 속 자기 관리

지휘자들 중에 영상 매체의 힘을 알아챈 것도 그가 최초일 것이다. 자신의 지휘 모습을 담은 첫 필름을 1965년에 연출가 앙리-조르주 클루조(1907~1977)와 함께 촬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은 깨지고 투자사의 돈줄도 말라버린다. 하지만 카라얀은 이를 계기로 영상문화에 본격적

(사진 출처\_카라얀 공식 홈페이지 [www.karajan.org](http://www.karajan.org))



으로 눈뜨게 된다. 베를린 필의 사령탑에 있는 34년 동안 베토벤, 브람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들을 CD는 물론 뮤직 비디오로 남겼다. 1965년에 자신이 설립한 영화 제작사 코스모텔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성공한다. 촬영 각도나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순간과 횡수까지도 카라안이 미리 결정했다. 카메라에 '맛'들린 그는 이미지 관리에도 철저했다. 그가 지휘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을 때는 특정 각도에서만 찍게 했고, 언론에 공개되는 사진은 카라안이 직접 고른 것이라야만 했다. 오십대 초반까지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을 고수했던 카라안은 그 이후부터 미용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그는 지휘를 끝내고 지휘자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빗부터 찾았다고 한다.

그가 설립한 코스모텔사는 각종 음악 다큐멘터리와 영화 제작에 손을 댔다. '호텔로', '나비부인', '라보엠', '카르멘', '장미의 기사' 등 카라안만의 장기이자 역사에 명작으로 남은 오페라를 영화화했으나 실패해 이 필름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카라안은 이에 굴하지 않고 텔레몬디아사를 설립, LD에 자신의 음악을 담았다. 영상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올 것을 예감한 것이다.

### ▶ 그의 음악과 영상은 여전히 건재한다

베를린 필이 1955년에 지휘자 세르주 체리비다케(1912~1996)를 버리고 카라안을 택한 이유도 이러한 상품 가치에 있었다. 베를린 필은 약 35년간 카라안 인생의 절정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어준 동시에, 그의 상품 가치를 철저히 이용해 세계 최고의 악단으로 군림하는 이득도 챙긴 셈이다.

카라안의 신화는 900장에 달하는 녹음과 1억 1천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밀리언셀러를 100번 이상 기록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수요자 저변 확대를 통한 음반 시장의 성장, 새로운 음악 매체의 개발, 20세기형 새로운 지휘자의 위상 정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는 그가 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카라안은 죽어서도 매년 18억 원씩 벌어들이는 지휘자이다.

'20세기 음악의 황제', '음악의 테크노크라트', '20세기 최고의 상업주의 예술가', '유럽의 음악 장관'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지휘자. 그는 지금도 살아 있다. 그가 남긴 음반을 들으며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사람도 많다. 필자 또한 누군가가 클래식을 공부하고 싶다고 물어오면 "카라안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클래식을 즐기고 싶다고 물어보면 "카라안을 즐겨라"라고 답한다. 신화가 된 그의 영상과 음악은 KBS 1FM의 여러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도 자주,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



## 성인지미 成人之美, 불성인지악 不成人之惡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혼자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울려 사는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회와 무궁한 재화를 제공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양상은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꽤 다르다. 크게 보면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는 마이너스 형의 경쟁이 있고, 상대를 인정하고서 '나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키우는 플러스 형의 경쟁이 있다. 우리가 흔히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형의 경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서로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된 마이너스 형의 경쟁 양상을 많이 보인다. 예컨대 스포츠에서 대표 선수를 선발할 때 파벌이 작용한다거나 직장의 승진과 채용에서 학벌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거나 기업의 거래에서 사소한 약점을 들추어내서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논어 연언』을 보면 공자는 군자의 품성으로 "주위 사람의 장점을 이루어주고, 단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다(군자성인지미君子成人之美, 불성인지악不成人之惡). 이 구절을 보고 대뜸 "현실에 저런 군자가 어디에 있어. 저러니 공자의 말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야!"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얼마나 경쟁을 신성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경쟁은 부족한 기회와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전지전능한 길이 결코 아니다. 지독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 상대를 깎아내리는 마이너스 형의 경쟁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가혹해지는 것이다. 주위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공로를 칭찬하다보면, '나'는 나에게 없지만 상대에게 있는 길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성숙된 상태로 나아가려면 주위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를 살피게 하는 플러스 형의 경쟁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